

비틀거리는 연말

광주, 불황 속 립살롱 대기행렬·경찰서엔 사고친 취객 넘쳐

만취 30대 폭행·절도·성폭행·공무집행방해

술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10시간 먹고 자고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송년모임이 많아지면서 광주 도심의 밤거리는 술로 비틀거리고 있다. '불경기'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고급 술집인 립살롱에는 대기 행렬이 이어질 정도로 손님이 북적였고, 경찰서와 지구대에는 술에 취해 각종 사건 사고를 저지른 취객들이 넘치고 있다.

지난 29일 밤 10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A립살롱에는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고급 양주 1병에 50만원 가량 할 정도로 고급 술집인 A립살롱에는 20여 개의 립이 있는데, 빈 방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밤새 북적었다. 1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립에 들어가는 손님도 있었다.

10인 이상의 립은 일주일 전 예약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을 만큼 문전성시를 이뤘다. A립살롱 주인은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30% 가량 늘었다"며 "고객들의 직업분포도 지난해

까지는 건설사나 분양대행사 같은 부동산 분야 손님이 많았는데, 올해는 구분 없이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송년회 시즌을 맞아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식당 앞길에서 임모(34)씨가 기분 나쁘게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후배 김모(29)씨의 머리를 벽돌로 때렸다. 후배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임씨는 혼자 도망쳤다.

30분 뒤 임씨는 북구 신안동에서 출근 중이던 이모(여·32)씨의 손가방을 빼앗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자 달아났다. 이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이 임씨는 범행 장소에서 500m 떨어진 가 구점에 들어가 금고를 훔치려다 이를 말리던 종업원을 폭행했다.

전날 밤 8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11시간 동안 술을 마신 임씨는 후배와 말다툼에서 시작해 폭행·절도·성폭행·공무집행방해 등을 잇따라 저지르면서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같은 시각 광주서부경찰서에서도 만취한 전모(37)씨가 조사를 받았다. 술에 취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모(여·69)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음식을 시켜먹는 등 10시간 동안 머문 혐의다. 전씨는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경찰에서 "저녁 근무를 마치고 동료와 새벽까지 술을 마셨는데, 우리 집인 줄 착각하고 잘못 찾아 갔다"고 진술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일도 잇따랐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들어 광주지역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925건에 달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범죄자 중 주취자 비율은 연말이 되면 높아진다"면서 "특히 만취 상태에서의 범죄사건은 4명 중 1명이 폭행 사건인 만큼 연말 술자리에서는 행동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눈눈눈...연초까지 강추위

광주·전남 대설주의보 ... 구름 속 해돋이

31일까지 지역에 따라 최대 10cm의 눈이 내리겠으며 광주·전남을 엄습한 강추위는 연초까지 이어지겠다. 새해 첫날은 구름이 다소개졌으나 서해안지방을 제외하고 해돋이를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1일 서해상에 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유입돼 광주·전남 대부분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 30일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3~10cm. 기상청은 30일 밤 광주와 함평, 목포 등 12개 시·군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영상 1도로 전날보다 더 낮겠다.

기상청은 특히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해남부전해상과 남해서부전해상에 30일 오후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여수와 완도 등 전남 지역 7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1분 해질 17시 30분 달돋이 16시 51분 달질 06시 59분

목소리·장갑 챙기세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겠다.

도시	최고/최저
광주	호리고 눈 -5/-1℃
목포	호리고 눈 -4/-1℃
여수	호리고 눈 -3/0℃
완도	호리고 눈 -3/0℃
구례	호리고 눈 -6/-1℃
애남	호리고 눈 -4/0℃
장흥	호리고 눈 -4/0℃
고흥	호리고 눈 -4/1℃
순천	호리고 눈 -4/1℃
영광	호리고 눈 -5/-3℃
진도	호리고 눈 -3/0℃
전주	호리고 눈 -6/-2℃
남원	호리고 눈 -8/-3℃
목산	호리고 눈 -2/1℃

〈오전〉 바다

구분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3.0~4.0m	주의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3.0~4.0m	주의	낮음

〈오후〉 바다

구분	풍향	파고	일몰	일출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목포 01:03	06:32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여수 08:52	02:12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3.0~4.0m	20:55	14:5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6/2	-5/5	-3/5	-2/4	-4/1	-6/0

부실 사립대 8곳 퇴출

교과부,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

정부의 사립대 경영진단 결과 전국 8개대가 '경영부실' 판정을 받아 정원 감축, 통·폐합, 합병, 해산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게 됐다. 이들 대학은 2011년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한 뒤 경영 정상화가 안 되면 강제로 학교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영부실 대학 선정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해당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들 대학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이번 결과를 내년 1월 중 해당 대학에 통보하고 경영 부실 및

경영개선 필요 대학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부실 8개교에 대해서는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내년 2월 말까지 교과부로 제출하게 해 대학선진화위에서 검토한 뒤 4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정원 감축, 타 대학과의 통·폐합, 합병, 해산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청문 등 절차를 거쳐 2011년 말까지 학교 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연협뉴스



광주 복구 시무식 대신 봉사활동

38개 사회복지시설서

광주시 복구가 내년 시무식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한해의 시작을 준비한다.

30일 복구에 따르면 송광은 복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1월 4일 복구 노인복지회관 사람의 식당과 각화 종합사회복지관, 오치 종합사회복지관 등 38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비인가 시설·노인정 등)에서 현장 시무식을 진행한다.

복구는 이날 사회복지시설의 식당에서 음식준비는 물론 배식 도우미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 세대와 노인정을 방문, 청소활동과 말벗 돼지기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송 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2010년(경인년) 새해를 맞는 결의를 다지는 한편, 내년도 복구민들을 위한 행복 나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구는 31일 치를 예정이던 종무식과 송년 다과회를 취소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자동차시민연합, 음주운전 사고 비용 분석해보니

소주 1병 뺏가는 2,300만원

술을 마시고 운전할 하다 인사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은 얼마나 될까.

30일 자동차 10년차기 시민운동연합(이하 자동차시민연합)에 따르면 소주 한병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전차 4주 이상의 인사를 고를 댔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라도 최소 2천3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벌금이 약 1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500만원, 인사사고 면

책금이 200만원 든다. 여기에 운전 면허 재취득 비용 100만원, 보험료 할증 200만원, 피해자 행사합의금과 기타 비용 300만원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점심 모임에서 소주 3잔 정도의 반주를 마신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6% 상태에서 단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벌금 300만원, 자차 수리비용 약 100만원, 보험 면책금 50만원 등 최소 450만원이 들어간다. 한 잔에 150만원짜리 술을 마시는 셈이다.

/연협뉴스

신영파크호텔 2010 새해맞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객실 1박 + 조식권 2회 + 새해맞이 파티장 입장 + ₩100,000 (내년 1월 1일 기준)

1. 12월 31일(목) 오후 6시 ~ 1월 1일(금) 오전 11시
2. 객실 1박 + 조식권 2회 + 새해맞이 파티장 입장 + ₩100,000 (내년 1월 1일 기준)
3. 12월 31일(목) 오후 6시 ~ 1월 1일(금) 오전 11시
4. 객실 1박 + 조식권 2회 + 새해맞이 파티장 입장 + ₩100,000 (내년 1월 1일 기준)

*담당 부서: Tel. 02-228-4711-2

謹賀新年 희망찬 새해를 맞아 가정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庚寅年 새해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로 새롭게 축하합니다 (전남본부-광주전남본부)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 -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내부: 안전의 중요성을 전제합니다. 전력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고객: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